

품명	구리로 만든 절연전선·케이블			
HS code	8544.11			
관세율(%)	MFN('24)	RCEP		
		'23	'24	'25
	4.8	3.5	3.1	2.6



▶ 해당 품목의 對일 수출증감률은 등락이 있으나 과거 급격한 감소세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수출 회복세에 있으며, '24년 9월 기준 전년 대비 10.2%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함

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HS code 8544.11) (단위 : 천 불, %)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19	39,874	-1.2
2020	45,094	13.1
2021	67,366	49.4
2022	60,162	-10.7
2023	47,133	-21.7
2023.9	36,008	-23.7
2024.9	39,669	10.2

▶ 일본은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관련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해당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요구됨. 일본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구리 전선은 필수적인 부품이며, 한국산 구리 전선의 對일 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동 품목을 3분기 수출증가 품목으로 선정함

우리나라 對日
수출동향

(HS 8544.11)

▶ 구리로 만든 것(HS 8544.11)의 對日 수출금액은 올해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HSK 8544.11-9000)”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소폭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연도별 對日 수출동향(HS code 2101.20 세부품목)

(단위 : 천 불,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2년	2023년	2024년 3분기
		총계	60,162	47,133	39,669
1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25,899	13,011	8,315
2	8544.11-9000	기타	34,263	34,122	31,354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85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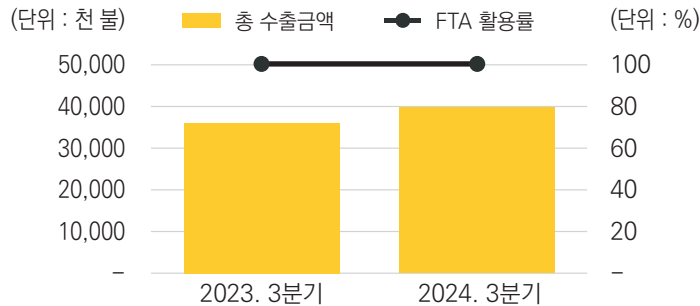
▶ HS 8544.11(구리로 만든 것)의 對日 수출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FTA 활용률은 동일함

- FTA 활용률 '23년 3분기, '24년 3분기 모두 99.9%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RCEP 기준 CTH or RVC 4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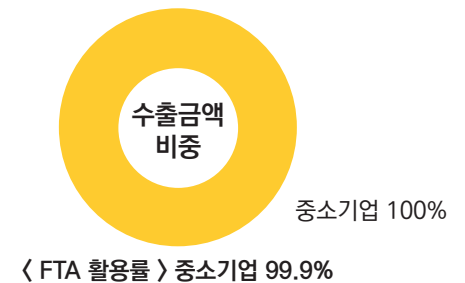
▶ '24년 3분기 기준, HS 8544.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0%, 중소기업 100.0%임

-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99.9%임
- 2024년 3분기 기준 해당 호의 대기업 수출실적은 1건(125불)으로 중소기업 수출실적(39,668천 불)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음

[HS 8544.11의 對日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2023~2024)]



[HS 8544.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4년 3분기)]



일본 수입 동향

- ▶ '24년 9월 기준 일본의 HS 8544.11의 주요 수입국은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태국(34.9%)과 중국(34.5%)으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15.0%), 한국(8.4%), 인도네시아(3.2%) 등의 국가 순으로 수입하고 있음

특이사항

- ▶ 일본 내 구리용 전선케이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구리용 전선 케이블은 전자통신·전자제품 제조·자동차·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며 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리의 높은 시장가격으로 인해 수요를 뒷받침할 만큼이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 구리 가격은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까지 구리 가격이 약 75% 상승할 것을 전망되고 있음
- ▶ 일본은 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 소국임
 -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 일본 시장에서 HS 8544.11 품목의 주요 공급국으로서 수출 1위 자리를 차지했으나, 2018년부터 중국에, 2020년 이후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수입이 일부 대체되면서 수출 점유율이 감소함
 - 특히,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아시아권 국가(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일본 시장 내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 일본에 수출되는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일본의 'PSE' 인증을 필요로 함
 - PSE 인증은 일본의 전기용품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인증이자 일본의 전기용품에 대한 의무적인 시장접근제도임
 - HS 8544.11 품목의 경우 특정 전기제품(고위험)으로 분류되어 '다이아몬드형 PSE' 인증 마크를 필요로 함, 따라서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국내 기업은 PSE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

특이사항

< 일본 PSE 규제 개요 >

- ◎ 인증명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 ◎ 인증개요
 -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제품이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여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 주요 검사 항목은 전자기 호환성(EMC)·전기 안정성·과열 화재 및 절연 누전 방지 검사
 - * 제품군에 따라 세부 안전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특정 전기용품의 경우 일본 정부가 승인한 시험소에서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함
 - 116개의 특정 전기용품(SP : Specified Products)과 341개의 비특정 전기용품(NP : Non-Specified Products)을 대상으로 함
- ◎ PSE 인증 마크 종류

다이아몬드형 PSE 마크	원형 PSE 마크
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제산업성(METI)에서 지정한 제3자 기관에서 안전 검사를 통과해야 함	비특정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자체적인 제조사 검사 후 일본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함

시사점

- ▶ 일본 내 케이블 부족 현상이 단기간 해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對일 HS 8544.11 품목의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확대 전략이 중요한 시점임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국과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품질 향상을 통한 차별화 전략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타겟팅 할 필요가 있음
- ▶ 선정품목의 RCEP 특혜관세는 3.1%이며 MFN은 4.8%로 RCEP 특혜관세 적용이 유리한 품목임
 - FTA 특혜관세 활용 혜택이 1.7% 있는 품목이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구리로 만든 것(HS 8544.11)”은 RCEP 적용 시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발효 11년차인 2031년 특혜관세율이 0%로 완전 철폐됨

< RCEP(일본) HS 8544.11의 관세양허스케줄 >

MFN	특혜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5.80%	4.40%	3.90%	3.50%	3.10%	2.60%	2.20%	1.70%	1.30%	0.90%	0.40%	0%

- ▶ 동 품목은 FTA 단계적 관세 철폐 대상품목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RCEP을 적극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품질 향상과 기술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